



덤보(Dombo) 머그잔



디스(This) 체어

 플라스틱 머그잔을 진화시킨 디자이너
Richard Hutten 리하르트 후텐

분야 가구, 제품 및 인테리어. 가장 네덜란드적인 자신의 디자인 최근에 발표한 '디스(This) 체어'가 좋은 예이다. 네덜란드 속담에도 '적당히 하라(Do normal)'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슬로건이기도 하다. 과장되지 않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아르네 야콥슨의 '버터플라이 체어'를 벤치마킹해, 종종 사용되는 방식인 나무와 스틸 프레임에 결합해 의자를 만들었다. 완벽한 곡선으로 편안함과 견고함을 지닌다. 5.5mm 두께의 얇은 나무 판재와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 가볍고, 쌓아서 보관하기에도 좋은 대중적이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베스트셀러** 단연 '덤보(Dombo) 머그잔'이다. 10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다. 동시에 내 대표작이기도 하다. 인체공학적이고 기능적으로 제안된 이 머그잔은 어린아들이 혼자서도 음료수를 잘 마실 수 있게 도와준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카피하기 매우 힘든 기술을 사용한다. 주입식 몰딩 기술을 이용해 손잡이를 만들어 가능

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일상 속 오브제를 만들었다. 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 이 머그잔은 15유로 정도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플라스틱 머그잔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유니레버 푸드 파트와 함께 개발한 쇼핑 가방이 있는데, 몇십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재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내 디자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나는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전하며 생활에 무언가를 보태주고 싶다. **디자인이란?**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몇 해 전 샌프란시스코 모던 아트 뮤지엄에서 전시를 하던 중 문득 이런 답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니레버의 쇼핑백